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 맥라렌과 이중철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 인 석*

그간 한국의 근대의학사¹⁾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은 대개 당대 의료의 제도적 측면을 주로 다루거나²⁾ 의학교육 일반³⁾, 혹은 의료기관의 역사⁴⁾ 등을 다룬 것으로 개별적인 의학 분야의 역사를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물론 각 의과대학의 교실사나 여러 학회에서 해방 이전 시기 해당 분야의 역사를 일종의 전사(前史)로서 다룬 경우는 적지 않으나 이를 논문의 형태로 체계화하여 발표한 경우는 드물다. 그에 비하면 정신의학 분야는 다소 예외적으로 한국 근대정신의학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발표되어 왔다.⁵⁾

한국의 근대 정신의학, 특히 일제 강점기의 정신의학은 크게 보아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한 줄기는 식민지배의 주체인 일제가 설립한 총독부의원, 경성의전, 경성제대의학부 등 관립기관을 통한 흐름이고, 다른 한 줄기는 사립인 세

브란스 병원과 의학전문학교를 통한 흐름이다. 선교의료기관이었던 세브란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의 관립의료기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졌다. 세브란스 정신과는 강한 인도주의적 성향을 가졌는데 이는 세브란스가 기독교 기관이었다는 점에서도 유래하지만 세브란스 정신과를 만들었던 맥라렌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사상과 강한 개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본 논문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의 형성 과정과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서 맥라렌과 이중철이란 두 인물의 성격과 학문적 성향이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의 성격을 형성해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양의학 도입초기의 정신질환과 치료

조선후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한역서학서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해방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이 있다.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 1997; 박윤재. 한국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혜안, 2005.

3)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서울: 아카데미아, 1995.

4) 박형우. 제중원, 서울: 몸과 마음, 2002.

5) 이부영. 일제하 정신과 진료와 그 변천 - 조선총독부의원의 정신과 진료(1913-1928)를 중심으로. 의사학 1994;3(2):147-169; 이나미·이부영.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1). 의사학 1999;8(2):233-268; 정원용·이나미·이부영.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2). 의사학 2006;(15(2):157-188.

통해 서양문물에 대한 소개가 다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서양의학을 비롯한 서양문물의 본격적인 도입은 1876년 2월 26일 일본과 국교를 확대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개항 이후 조선은 근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의학을 비롯한 서양문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의학의 경우 1884년 9월, 최초의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알렌이 갑신정변 때 다친 민영익을 치료해준 일을 계기로 1885년 4월 10일 제중원이 개원한 것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제중원 설립 이듬해인 1886년 알렌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중원에서 진료한 일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통계를 실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를 출간했다.⁶⁾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던 질병의 양상을 잘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질환을 크게 18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통계를 내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묶음이 신경계의 질환(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이다. 당시에는 정신의학과 신경학이 아직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신과적 질환과 신경과적 질환이 섞여있다. 이 가운데 현재의 정신과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12 예
 히스테리(Hysteria) 33 예
 히스테리 구(Hysteria Globus) 3 예
 백치(Idiocy) 3 예
 정신이상(Insanity)
 조증(Mania) 6 예
 치매(Dementia) 3 예
 우울증(Melancholy) 4 예
 불면증(Insomnia) 3 예
 신경쇠약(Nervous Prostration) 1 예

이 가운데 히스테리 환자가 다른 정신질환 환자에 상당히 많은 큰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함께 쓴 『히스테리 연구』⁷⁾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 19세기 말의 정신의학계에서 ‘히스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알렌과 헤론은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정신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정신과 영역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알렌과 헤론이 정신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일반의였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 정신의학의 질병분류에 따라 한국인의 정신질환을 분류한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개항 직후인 1877년 일본 해군이 부산의 일본 거류민을 위해 세운 제생의원(濟生醫院)에서도 일부 조선인들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의사 고이케(小池正直)는 1883년 4월부터 1885년 3월까지 이곳에서 진료한 내용을 『계림의사(鷄林醫事)]에 기록했다. 그는 질병을 비뇨기병, 생식기병, 화류병, 호흡기병, 염증, 전염병 등 큰 범주로만 분류하였고 알렌과 같이 구체적인 병명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신질환이라는 범주가 있긴 하지만 환자 통계를 보면 일본인 4명에 조선인은 한 명도 없다. 조선인이 한 명도 없는 이유에 대해 고이케는 조선이 문명화되지 않아 고민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는 일본인들보다 정신병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질병을 통한 민족적 차별이라는 점에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없지만 정신질환을

6) 박형우·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1999;3:3-81.

7) 프로이트, 브로이어(김미리혜 옮김). 히스테리 연구. 서울: 열린책들; 2004.

고등화된 문명의 소산이라고 보아 민족적 우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관점이 흥미롭다.

한편 제증원은 1894년 에비슨에 의해 선교부로 이관되어 선교의료기관으로 재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비슨은 의학교육도 시작하고 이를 위해 의학교과서도 편찬하였다. 그러던 중 1899년 안식년을 떠난 에비슨은 1900년에 귀국하여 제증원에서 환자 진료를 재개하였고 이듬해인 1901년 9월에 제증원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본 외래환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진단한 사람은 모두 17명이었는데 정신이상 2명, 건강염려증 1명, 신경쇠약증 14명 등이었다. 물론 전체적인 절대 환자수가 적어 의미 있는 비교는 어렵겠지만 15년 전 알렌의 일차년도보고서에서 많던 히스테리 환자는 하나도 없고 대신 신경쇠약증(neurasthenia) 환자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신경쇠약증이란 새로운 범주의 질병이 등장해 유행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일찍부터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한 것은 기록으로 확인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제증원에서 의학교육을 시작한 것은 1886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식 선발시험까지 보아 뽑은 학생들에 대한 의학교육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영어와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그리고 일부 기초의학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이 떠나고 제증원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 제증원 의학당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듯하다. 제증원에서 의학

교육이 재개된 것은 에비슨이 제증원을 맡고 난 이후이다. 아마도 에비슨은 1895년경부터는 조수 겸 학생을 뽑아 의학교육을 시작했던 듯하다. 이후 에비슨은 한국어 의학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기초과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전반에 걸친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도했다.¹⁰⁾ 그중 일부 교과서가 남아있고 또 준비 중에 끝을 보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정신과 교과서는 편찬되지 못했다. 그러나 에비슨이 제증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위주의 교육을 시행했으므로 학생들이 정신과 환자들을 볼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교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1906년 무렵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병명 가운데 정신이상(insanity)과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등과 같은 정신질환명이 보이는 것을 보아서도 그러한 사실은 추측할 수 있다.¹¹⁾

2. 세브란스 정신과의 창설과 맥라렌

1908년 6월 3일 첫 졸업생 7명이 배출된 이후 1909년 교육령이 개정되자 에비슨은 학교의 명칭을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등록하였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용기를 얻은 에비슨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했고, 1910년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4개 학년이 차게 되었다. 그동안 에비슨과 허스트가 학생 교육을 맡아왔으나 학생들이 많아지자 보다 충실한 교육을 위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에비슨은 미국 북장로교 이외에 조선에 와있던 다른 교파(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

8) 小池正直. 鷄林醫事(下), 1887. p.18.

9) O. R. Avison,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p. 3. Methodist Publishing 1901. 박형우·이태훈, 1901년도 제증원 연례 보고서. 연세의사학 2000;4:220.

10)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서적. 의사학 1998;7(2):223-238.

11) O. R. Avison, Severance Hospital, *The Korea Review* 1906;6:62-67.

교, 감리교, 성공회 등)의 의료선교사들을 초청하여 학생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처럼 여러 교과에서 연합하여 학생교육에 참여하게 되자 1913년에는 학교이름도 ‘세브란스 연합의학교(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로 바꾸었다. 이처럼 의학교육이 점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1913년도에 학점을 갖는 과목으로 정신과가 4학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강의는 호주장로교 소속의 맥라렌(C. I. McLaren, 1882-1957)이 담당하였다.

맥라렌은 원래 1911년 11월 호주장로회 소속의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진주로 왔다.¹²⁾ 진주에는 앞서 부임한 커렐(Hugh Currel)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맥라렌은 커렐과 함께 진주의 배돈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세브란스의 연합화 정책에 따라 맥라렌은 1913년부터 세브란스에 출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14년 졸업생들부터 4학년에 정신의학 학점이 부여되는 것

을 보아 세브란스에서 정신의학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13년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³⁾ 이후 맥라렌은 1차 대전 참전으로 조선을 떠난 1917-1920년 기간을¹⁴⁾ 제외하고는 계속 세브란스에서 정신의학을¹⁵⁾ 가르쳤다. 다만 그는 상당 기간 진주에 근거지를 두고 강의를 있을 경우나 필요할 때 세브란스에 와서 강의를 했던 듯하다. 그것은 1921년까지도 그의 소속이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진주의 배돈병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¹⁶⁾ 맥라렌이 1차 대전 참전으로(1917-1920) 세브란스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내과의 심호섭이 임시로 정신의학 강의를 했다. 심호섭은 1913년 총독부의원부속의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까지 총독부 의원 정신과에서 조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¹⁷⁾ 비록 그가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 부임하였지만 맥라렌의 부재중에는 대신하여 정신의학을 강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⁸⁾ 1917년 세브란스 일람에 따르면 정

12) 맥라렌에 대해서는 50쪽이 안 되는 간단한 영문전기가 출판된 바 있다. Esmond W. New. A Doctor in Korea, Sidney: The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58. 맥라렌은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활동하던 중인 1882년 8월 23일 일본에서 태어났다.

13)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914년 졸업생 학적부.

14) 맥라렌은 1917년 12월 29일 요코하마에서 그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그가 참전을 위해 조선을 떠난 것은 1917년 12월 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20년 4월 말 경이었다. C. I. McLaren, Letter to Mother, April 25th, 1920.

15) 심사자 중 한 분은 1917년 Catalogue에 과목명이 Neurology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신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신경학(neurology)과 정신의학(psychiatry)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정신의학에서 오늘날 신경학에서 다루는 질환까지도 다른 사실을 본다면 이러한 지적은 부적절해 보인다. 만약 이를 ‘신경학’으로 쓰면 오히려 오늘날의 신경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그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신경 및 정신질환이 모두 들어있고 교재로 구레의 정신의학 교과서가 추천되고 있으므로 정신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1913년 이후 학적부에는 과목명이 ‘정신병학’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 ‘neurology’와 ‘psychiatry’가 오늘날처럼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용어에만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신경학과 정신의학이 분리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의학회의 명칭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으로 여전히 “신경”을 포함하고 있음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6) C. I. McLaren, Our Medical Work, *The Korean Mission Field* 1921;17(2): 29-30,

17) 朝鮮總督府醫院年報 2回(大正2年), p. 6; 朝鮮總督府醫院年報 3回(大正3·4年), p. 6; 朝鮮總督府醫院年報 4回(大正5年), p. 6. 그런데 경성의전일람의 구 교직원명부에 따르면 심호섭이 그는 또 1916년 4월 1일부터 1917년 10월 30일까지 경성의전의 조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 6年(1931), p. 133. 이 기록은 서로 상치되는데 조선총독부의원 1916년 연보에 따르면 심호섭은 이 해에 조수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정구충의 『한국의학의 개척자』에 따르면 심호섭은 세브란스 의전에 친구가 많았으며 세브란스 내과로 오라는 요

신의학 강의는 4학년 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이루어졌다.¹⁹⁾ 강의는 신경학과 정신의학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학생 강의용 교재는 일본어로 된 구레(吳秀三)의 교과서를 사용했다.²⁰⁾

그렇다면 세브란스 정신과 교실은 언제 창설 되었을까? 엄밀히 말해 교실 창설의 문제는 학생 강의나 진료와는 다른 문제로 전체 고등교육체도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총독부는 1915년 전문학교 규칙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명목상 부실한 학교의 난립을 막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였으나 실제로는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세운 관립학교와는 달리 자신들의 직접적 통제권을 벗어난 사립학교가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정식 전문학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의 구성과 교수진의 확보, 일본어 교재 사용 및 강의 시 일본어 사용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이는 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체제를 일본식 체제에 맞추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조선에서 의학교육을 해야 하는 세브란스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조건에 맞게 재단도 새롭게 구성하고 교수진도 일본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위 일본식의 '교실' 체제도 이때 갖추게 된다. 정신과학교실 역시 다른 교실과 함께 1917년 전문학교 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 세브란스 정신과의 창립자인 맥라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맥라렌은 1913년부터 상당 기간 진주의 배돈병원과 세브란스를 오가면서 강의와 진료를 하다가 1923년 세브란스 정신과의 전임(專任) 과장이 되어 1938년까지 재직했다.²¹⁾ 맥라렌은 신경학과 정신의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던 당시의 상황에 따라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모두 가르치고 진료도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신경학보다는 정신의학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다.²²⁾ 이러한 경향은 그 자신이 쓴 여러 편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프로이트, 아들러 등과 같은 유럽의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사실 맥라렌의 글을 읽어 보면 그가 문학과 철학, 종교 등 인문학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교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신의학의 문제를 인간 영혼의 문제로 보았고, 그런 만큼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 정신의 차원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 만연하던 신경쇠약증에 대한 그의 진단을 살펴보자.

조선에 만연한 신경쇠약증은 도착적인 성적 관념, 비자연적인 (성)행위, 축첩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혼 관습, 극심한 가난에서 오는 불안, 이민족 지배에 따른 고통 등으로부터 온다. 동정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이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으로 판명된 최상의 치료법이다.²³⁾

청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래서 총독부의원에서 일하는 한편 1915년부터는 세브란스 내과에서 겸직 근무를 했다. 정식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1917년이었다.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 서울: 동방도서; 1985. p. 53.

19)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17. p. 31.

20)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17. p. 35.

21) The Korean Mission Field 1940;36(12):217.

22) The China Medical Journal 1931;45:1062.

즉 그는 신경쇠약의 원인을 성적 모랄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축첩제도와 같은 사회적 차원, 일제 식민지가 된 정치적 상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찾았던 것이다.

맥라렌은 1926년 9월 20일 호주로 안식년을 떠났다가 1년 후 다시 세브란스로 복귀했다. 맥라렌이 떠나있는 동안은 이수원(세브란스 의전 1919년 졸업)이 정신과를 맡았다.²⁴⁾ 1927년 가을 학교로 복귀한 맥라렌은 다시 1929년 5월 약 2개월 예정으로 비엔나로 단기 연수를 떠났다.²⁵⁾ 그는 기차를 타고 만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모스크바를 거쳐 비엔나에 도착했는데 여행 도중 소비에트 치하의 러시아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오랜 기차 여행 끝에 도착한 비엔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였다. 특히 지난 세기부터 서양의학의 한 축을 이룬 비엔나 의과대학에는 외국으로부터 수백 명의 의사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영어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다. 맥라렌은 신경학과 정신의학 특별 강좌에 참석하여 공부를 하였다. 당시 비엔나는 신경학과 정신의학에서 학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진행마비에 대한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한 바그너-야우렉(Julius Wagner-Jauregg, 1857-1940)과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모두 맥라렌이 체류하던 당시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물론 기독교적 관점의 정신치료를 목표로 했던 맥라렌은 성적 측면을 강조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생물학적 접근이 아니라 심리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정신분석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맥라렌이 프로이트나 아德勒의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소화한 것을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맥라렌은 정신치료를 중요시했다.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맥라렌은 한 환자를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씩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²⁶⁾ 어쨌든 비엔나의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에 감명을 받은 맥라렌은 세브란스의 다른 교수나 졸업생들도 비엔나에 와서 그와 같은 연구의 기회를 갖기 희망했다.²⁷⁾ 실제로 후에 맥라렌은 제자 이중철을 비엔나로 유학 보내려고 하였으나²⁸⁾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의 이러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엔나에서 돌아온 얼마 후 맥라렌은 중국에서 발간되던 영문의학잡지인 “China Medical Journal”에 1930-31년 세브란스 정신과의 보고서를 신는다.²⁹⁾ 이 글은 형식상 세브란스 정신과의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맥라렌의 개인적 경험과 의학에 대한 철학, 기독교에 대한 생각 등이 더욱 비중 있게 서술되고 있다. 맥라렌은 자신이 한국에서 본 환자들의 특징과 한국에서 흔한 정신질환과 드문 정신질환을 서양의 경우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신경정신과에서 보이는 양상과 서

23)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23-1924, p.6-7.

24) A Visit to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7, p.8.

25)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7;11:76.

26) 각과 순례기,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2:56.

27) C. I. McLaren, Notes on my brief trip to Vienna,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2:64.

28) C. I. McLaren, Letter to Mary, Oct. 12, 1930.

29) C. I. McLaren, Report of Depart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China Medical Journal* 1931;45(11):1058-1067.

양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놀랄 정도의 유사성과 놀랄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유사성은 많고 놀라울 정도인데 그것은 동서양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언해준다. ...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놀랄 만하다. ... 매독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general paralysis)와 위축(tabes)은 없다. 전신마비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보이고, 또 그것이 과거 중국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전신마비와 위축을 북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진전섬망(delirium tremens)은 내가 한국에서 보지 못한 질병이다. ... 루미날과 브로마이드로 치료받은 많은 간질환자의 경우 놀랄 만한 효과가 있었다.³⁰⁾

이 기록을 통해 맥라렌이 경험한 당시 한국의 정신질환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으나 정작 당시 세브란스 정신과의 상황을 알려주는 언급은 별로 없다. 다만 아직까지 정신과 병동이 따로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³¹⁾ 경제공황의 와중에도 정신과 병동 건축을 위한 기부금이 모아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또 학생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이 신경해부학과 정신과를 가르치고 있다고 쓰고 있다.

3.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일제총독부 당국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적

약자나 주변인들을 감금 혹은 격리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일제 초기 경찰을 통해 전염병 환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순화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라거나³²⁾ 전국의 나환자들을 모아 소록도에 강제 수용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과 같이 사회적 주변인들이었던 정신질환자들 역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총독부 의원에 입원되었다.³³⁾ 이에 비해 선교병원들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이들 사회적 주변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처우했다. 이는 순화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에 반발한 한국인들이 자발적인 사립피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모금된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내에 전염병동을 설립한 일이나³⁴⁾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나병원에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던 일³⁵⁾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일제하 선교병원에서는 유일했던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는 선교병원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인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맥라렌의 개인적 신념이 이러한 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맥라렌은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도적 처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당시 조선에서 정신병자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신과 환자들은 오래 전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거의 벗은 몸으로 음식을 구걸하고 거리를 방황하게 두었다. 난폭하면 밧줄로 묶어 두었다.”³⁶⁾ 1924

30) 앞의 글, 1059쪽.

31) 1929년에 교수회의 결의로 동대문 부인병원의 일부를 수리하여 25명의 정신병환자를 수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의 계획으로는 동대문부인병원 전부를 장차 정신병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1:68.

32) 박운재. 한국근대의학의 탄생. 서울: 해안; 2005. p.367.

33) 朝鮮總督府醫院年報 2回(大正2年), p. 177-179.

34) 박운재. 일제하 사립 피병원 설립운동 연구, 의사학 1998;7(1):37-45.

35)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2002. p.487-488.

년 당시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운영하는 50 병상 규모의 정신병동이 당시로서는 정신병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유일한 병동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그가 묘사한대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군중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신병자들을 수용해 치료할 정신병동을 설립하는 것을 세브란스 정신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했다.³⁷⁾

그의 이러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 비엔나에서 돌아온 맥라렌은 그동안의 숙원 사업이던 정신병동 건립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1930년 전염병동 뒤쪽에 작은 정신병동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이 건물은 남자환자 3명, 여자환자 3명 등 모두 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고 교육에 필요한 여러 임상 장비들을 갖추었다. 비록 병동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겪던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병동의 건립은 정신과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이 병동의 건립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거주하는 캐롤린 아담스 부인(Mrs. Caroline B. Adams)의 기부가 큰 힘이 되었다. 병동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아담스 부인은 기부를 계속했는데 그 돈은 병동이 확장될 때를 위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³⁸⁾ 정신병동의 건립에는 아담스 부인의 공헌이 컸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들이 3,400엔을 기부했고, 피터스 목사(Rev. A. A. Pieters)는 병동의 설

비를 위해 1,000엔을 기부했으며³⁹⁾ 당국으로부터도 일부 보조를 받았다. 이 병동에 대해 맥라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병동은 크지는 않지만 그 목적에 적합하게 지어졌다. 방화, 방음, 탈출방지와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위험인 자기상해로부터도 보호된다. 병실 벽을 칠하는 데 있어 색깔도 치료의 요소로서 간과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그림들도 마련할 것이다. 건물 주위에는 환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 직원들도 그들의 특별한 일에 적합한 경험과 공감을 가진 사람들도 특별히 선택했다.⁴⁰⁾

이처럼 그는 정신병동을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라 환자들이 인도적으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사실 맥라렌의 인도주의적 생각은 정신과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선교부가 연합하여 만든 사회사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활동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창폐지 운동이었다.⁴¹⁾ 그는 창녀들의 힘든 삶에 대해 깊은 연민과 동정을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법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⁴²⁾ 그리고 그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

36) 이는 다음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한국근대정신의학의 역사적 조명, 서울의대 정신의학 1988;14(1):17.

37) 앞의 책, 7쪽.

38) C. I. McLaren, Care of Insane. The Korea Mission Field 1939;35(3):62.

39)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2-33, p.29.

40) C. I. McLaren, Things Both New and Old in Psychological Medicine. China Medical Journal 1932;35(3):62.

41) C. I. McLaren, The Work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 The Korea Mission Field 1925;21(5):108-112.

42) C. I. McLaren, What the Detective told Me, The Korea Mission Field 1932;28(6):121-122.

드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⁴³⁾

이와 같은 맥라렌의 인도주의적 사상의 바탕은 물론 기독교 정신이었으며 그는 인도주의의 바탕을 기독교의 보편적 형제애에서 찾았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보편성의 근거를 정신의학에서 찾았다. 다시 말해 그는 정신과의사로서 인간이 앓는 정신질환이 민족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발견했고 이러한 사실은 민족간의 우열관계가 존재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좋은 반증이라고 생각했다.⁴⁴⁾ 그런데 그는 이런 보편성의 근거를 인류가 가지는 생물학적 구조의 동일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구조의 동일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야스퍼스가 정신질환의 기원을 신경세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뇌의 신화”라고 부른 것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spiritual) 기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또한 그는 정신질환에서는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인 배후나 뒤가 아니라 ‘앞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목적론적 설명은 넌센스로 치부되지만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설이 성립된다며 인간행동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목표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분열증의 뿌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⁴⁶⁾ 인간이 목표를 상실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마음이 해리된(disintegrate) 결과 정신분열증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⁴⁷⁾ 따라서 이와 같이 삶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예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맥라렌은 정신병이 “환자에게 목표감, 정신적 목표,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된다”고 생각했다.⁴⁸⁾

맥라렌은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해 기질적 접근보다는 정신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트처럼 정신질환의 성적기원을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일부 정신질환이 성적기원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요인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신경쇠약증 증례의 일부는 성적인 기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험티와 덤티처럼 ‘성’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너무 확장시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 그 단어로 의미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경쇠약의 상당 부분은 성적인 기원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프로이트의 이론과 모순되며 현대의 과학적 정신병리학의 중요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우리들의 발견과 이러한 발견에 근거를 둔 치료에 대한 반응에서 더해진 증거에 따르면 신경쇠약의 원인에 대해서는 드제린과 아들러의 견해에 더욱 신뢰가 간다... 우리는 성적인 요소들과 무관한(성적인 것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원인이 된다고 이해되는) 접근과 치료방법을

43) C. I. McLaren, Proposed Rescue Home in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1926;22(6):133.

44) C. I. McLaren, Lessons From the Neurology Clinic, *The Korea Mission Field* 1925;21(10):214.

45) C. I. McLaren, Things Both New and Old in Psychological Medicine, *Chinese Medical Journal*, 1932;46:914.

46) C. I. McLaren, *ibid.*, p.925.

47) C. I. McLaren, *ibid.*, p.917.

48) C. I. McLaren, *ibid.*, p.925.

통해 일시적인 호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했다고 주장한다.⁴⁹⁾

그가 프로이트보다는 아들러의 견해에 더욱 신뢰를 보내는 것은 삶에서 성적인 측면 이외에 일과 우정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아들러의 입장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들러에 따르면 이들 세 요소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정신질환의 본질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들러의 이러한 입장은 삶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맥라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⁵⁰⁾

정신분석과 관련하여 맥라렌은 정신분석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마음의 평화는 얼음[무의식]의 두꺼움과 얇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꺼움과 얇음에 대한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내 과업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성공은 나의 믿음과 사실이 이루는 조화의 정도에 좌우된다”⁵¹⁾고 말했다.

그리고 맥라렌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신치료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인간의 마음이 받는 상처에서 유래한다며 그가 세브란스에 근무하던 초기인 1925년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병원의 진료에서 정신치료(psycho-therapy) 교육과 진료를 위한 적절한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⁵²⁾ 정신치료가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한 그는 좁은 의미의 의학

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들을 그의 치료에 활용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내가 가진 보잘 것 없는 지식도 내가 치료 도중 곤란함에 빠질 경우 때로는 내게 길을 비춰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거듭 되돌아가게 된다. 내게는 그것이 적절하고 살아있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것은 생기를 잃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⁵³⁾

실제로 그가 기독교적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정신치료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그가 기술한 다양한 증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⁴⁾ 이처럼 맥라렌은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 한국인 정신과의사의 양성

맥라렌이 세브란스 정신과를 맡고 교실이 만들어지자 한국인으로 정신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신의학의 본격적인 토착화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세브란스 졸업생 중에는 1919년 졸업생인 이수원이 처음으로 정신과를 전공했다.⁵⁵⁾ 그는 『세브란스 교우회보』에 비네의 지능검사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49) C. I. McLaren, Report of Depart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China Medical Journal*, 1931;45(11):1058-1067.

50) McLaren, *ibid.*, p.1061.

51) C. I. McLaren, Things Both New and Old in Psychological Medicine, *Chinese Medical Journal*, 1932;46:916.

52) C. I. McLaren, Lessons From the Neurology Clinic, *The Korea Mission Field* 1925;21(10):214.

53) C. I. McLaren, Report of Depart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China Medical Journal*, 1931;45(11):1062.

54) C. I. McLaren, Things Both New and Old in Psychological Medicine, *Chinese Medical Journal*, 1932;46:919-925. 이외에도 구체적 치료증례에 대한 기술은 그의 여러 글들에서 산견된다.

등⁵⁶⁾ 정신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며 1928년까지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근무했다. 이수원이 졸업 이후 계속 정신과에서 근무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소한 1923년 이후부터는 정신과 조수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기록으로 확인된다.⁵⁷⁾ 이수원이 1928년 학교를 떠날 때까지 학교와 동창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을 보면 졸업 후부터 계속해서 정신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 교우회보』에 따르면 이수원은 192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경성제국대학 병리학교실의 토쿠미츠(德光美福) 교수 밑에서 연구할 예정이었으며,⁵⁸⁾ 실제로 9월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나 신병으로 인해 휴양을 했다.⁵⁹⁾ 그러나 그 이후에 학문적 활동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연구 활동은 하지 않고 개원을 한 듯하다. 다만 1935년 세브란스 졸업앨범에는 이수원이 정신과 강의를 하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는 떠났지만 때로 정신과 강의는 한 것으로 여겨진다.⁶⁰⁾

한편 세브란스 정신과의 구교직원 명단에 따르면 이수원 이외에도 정신과의 조수로 근무했

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임현재(임현재?, 1919), 김용빈(1914년 졸업), 이수원(1919년 졸업), 김홍진(1919년 졸업), 박선이(1923년 졸업), 박위병(1925년 졸업) 등이다.⁶¹⁾ 이 가운데 앞서 언급한 이수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정신과를 전공한 사람은 없는 듯하며 대개 조수로 근무하다 다른 전공을 택하거나 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라렌과 함께 일하던 이수원이 세브란스 정신과를 떠났으나⁶²⁾ 다행히 이중철(1927년 졸업)이 들어와 정신의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고 맥라렌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 정신과를 맡았다. 이중철은 1904년 1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23년 3월에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7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졸업하던 해인 1927년 4월 20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다.⁶³⁾ 그러나 이중철이 처음부터 정신과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중철은 졸업 직후 정신과와는 다소 거리가 먼 산부인과 교실에 조수로 들어가 근무했으며 이듬해인 1928년 1월 산부인과 교실을 사임하였다. 산부인과 교실을 사임한 그는 1928년 4월

55) 1920년대 초반 이전 국내 의전 졸업생으로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심호섭(총독부의원부속의학교, 1916), 이수원(세브란스, 1919), 김탁원(경의전, 1921) 등을 꼽을 수 있다. 심호섭은 졸업 후 총독부의원 정신과에서 조수로 근무했으나 후에는 내과 의사로서 세브란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내과 의사로 활동했다. 김탁원은 경의전을 1921년에 졸업하고 일본에서 정신과를 공부했는데 정신의학보다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한성사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부인인 길정희 여사와 함께 여자의학강습소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56) 이수원, The Intelligence Test Binet-Simon Method,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6:8:32-33.

57)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23-1924, p.3;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5-26, p.8.

58)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8:10:59.

59)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1:73.

60) 이수원의 강의 사진을 찍었을 1934년에는 이중철이 구주대학에서 유학을 하느라 학교를 떠나 있던 때였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이수원이 강의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은 세브란스 병원 근처인 남대문동 5-11번지에서 개원했고, 후에는 평북 용천으로 옮겨 개원했다.

61)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6. p.92.

62) 이수원이 세브란스 정신과를 떠난 시기는 분명치 않다. 1929년경이 아닌가 한다.

63) 1942년 판 『日本醫籍錄』에 따르면 이중철의 의사면허 번호는 821번이다.

영광읍내에서 개원을 하다가 강화도 길상면으로 개업지를 옮겼다.⁶⁴⁾ 그러나 개원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증철은 개원하는 틈틈이 경성제국대학의 오가와(小川)외과에서 연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⁵⁾ 이증철은 개원을 했다가 정확히 일 년 후인 이듬해 3월, 개원생활을 거두고 다시 세브란스 의전 신경과 교실에 조수로 들어가 근무하기 시작했다.⁶⁶⁾ 이증철이 어떤 동기에서 정신과를 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증철이 학술적인 글은 적지 않게 남겼지만 개인사와 관련해 남긴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증철이 정신과에 조수로 들어갔을 때에는 안식년을 떠났던 맥라렌 교수가 돌아와 다시 교실을 맡고 있었다.

한편 이증철은 1929년 6월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정신과 교실에 들어가 6개월간 연구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경성제국대학에는 동경제대 출신의 구보기요지(久保喜代二)가 주임교수로 있었다. 이증철은 첫 논문을 1930년 11월에 창간된 『조선의보』에 실었다. 『조선의보』는 당시 일본인들이 발간하던 『조선의학회잡지』에 대항해 한국인 의학자들이 발간한 잡지로 비록 1930년에서 1937년까지 길지 않은 기간 발간되었지만 일제하 한국의학자들의 논문을 실던 한글로 된 유일한 의학잡지였다. 이증철이 『조선의보』 창간호에 실은 논문의 제목은 「유행성뇌척수막염에 Cisterna Magna 세척요법」이었다. 이 논문의 지도는 당시 세브란스 정신과 과장을 맡고 있던 맥라렌 교수로 되어있다. 이것은 유행성 뇌척수막염시 요추천자와 대조(大槽,

cisterna magna)의 천자를 동시에 시행하고, 뇌척수를 생리식염수로 반복하여 세척하는 치료법에 대한 논문이었다. 임상증례까지 포함하는 이 논문은 세 쪽에 불과한 짧은 논문으로 후에 이증철이 주로 하게 되는 기초적 연구가 아니라 임상적 연구이다. 이후에도 이증철은 『조선의보』에 꾸준히 글을 발표하였으며, 또 그의 중요한 근황이 소식란에 빠지지 않고 실린다. 같은 해 이증철은 『세브란스 교우회보』에 「의학상으로 본 스포츠」라는 글을 실었는데⁶⁷⁾ 여기서 그는 각종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손상을 각 부위와 계통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후 이증철은 1931년 10월 유명한 북경협화외과대학에 파견되어 6개월간 연구에 종사하였다. 북경협화외과대학은 세브란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선교하던 기독교의 각 교단이 연합해서 만든 학교였으나 록펠러 재단이 중국의 존스 홉킨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투자를 하였으며, 당시 일급의 의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였다. 그 중에는 북경원인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한 데이빗 블랙도 있었다. 북경협화외과대학은 세브란스와 같이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학교였으므로 이증철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이 북경협화외과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당시 북경협화외과대학의 신경과에는 드브리스(Ernst De Vries)가 교수로 있었다. 이증철이 거기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의 연구업적과 관련해보는다면 아마도 신경학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

64)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8;10:61.

65)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1:74.

66) 이상과 아래의 주요 이력은 1935년 7월 17일 이증철이 구주제대에 제출한 박사학위신청서에 첨부한 자필 이력에 따른 것이다.

67) 이증철, 의학상으로 본 스포츠, 세브란스 교우회보 1930;13:6-9.

다. 북경협화의대에서 이증철의 근황과 제자에 대한 생각을 스승인 맥라렌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다음으로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우편물을 훑어본다. 가장 관심을 끄는 편지는 북경협화의대의 신경과 과장이 보낸 것이다. 그 편지에는 내가 졸업 후 연구를 위해 보낸 나의 조수 닥터 리(이증철)가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예정된 공부를 거의 다 마치고 곧 서울로 돌아갈 것이라고 써어있다. 닥터 리는 훌륭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이다. 그는 우리 졸업생으로 북경에서의 시간과 나와 함께 연구하고 임상을 한 것 이외에도 이 지역에 일본이 세운 의과대학에서 졸업 후 연구를 했으며 의학박사 논문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는 나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 정신과를 맡을 사람이다.⁶⁸⁾

이듬해인 1932년 4월, 북경에서 6개월 동안의 연구를 마친 이증철은 모교로 복귀하여 강사로 부임하였다. 모교에서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이증철은 다시 1933년 4월 15일 교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구주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의학부로 유학을 떠났다. 이증철은 구주대학 의학부 정신병학교실 내에 있는 병리조직학 연구실에서 정신질환에 수반되는 뇌의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다. 이증철이 유학을 떠난 후 뒤를 이어 후배로 1933년 졸업생인 김중렬이 세브란스 정신과에 남았다. 그런데 김중

렬이 실제로 정신과에 재직한 기간은 길지 않아 1935년 9월에 잠시 해주 구세병원으로 간 이후에는 다시 모교로 복귀하지 않고 개원을 했다.⁶⁹⁾ 한편 구주제대에서 유학 중이던 이증철은 학위논문을 완성하고 1934년 12월에 귀국하게 되는데 이는 호주에서 연구하기 위해서였다.⁷⁰⁾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이증철이 다시 호주로 가게 된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호주 출신이었던 맥라렌 교수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증철은 1935년 1월에 경성을 떠나 호주를 향했으며⁷¹⁾ 호주여행기를 동아일보에 193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증철이 탄 배는 나가사키, 홍콩, 마닐라를 경유하고 적도를 통과하여 마침내 호주의 브리스번 항에 도착하였다. 브리스번 항에서 다시 시드니로 간 이증철은 시드니 근교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병원을 방문하고 받은 느낌을 기록하였다. 이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증철이 우리나라 정신의료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로 조금 길지만 전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날 오후에는 시외로 3리가량 떨어진 칼네팅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으로 입원환자가 오백 명 가량 됩니다. 호주에는 정신병자를 집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는 정부에서 입원시킵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자 문제가 자연 나오게 됩니다. 弟가 알기까지는 조선에 위생 당국으로 현재 세 가지

68) C. I. McLaren, Saturday Morning in a Hospital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32;28(3):45.

69) 세브란스 초기 정신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1999년 필자는 김중렬 선생님을 방문했으나 당시 선생님은 와병 중이셨고 기력이 많이 쇠해 많은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셨다. 이 인터뷰에 관한 내용은 『연세의사학』에 실려 있다. 여인석, 김중렬 선생님 탐방기, 연세의사학 1998;2(4):571-574.

70) 세브란스 교우회보 1935;23:26.

71) 조선의보 1935;4:96.

큰 현안이 있다고 봅니다. 즉 정신병, 나병과 결핵병 문제입니다. 나병환자 수용문제는 작금 큰 서광을 보아 近近 해결되어 가지만 제일로 꼽힌 정신병자 수용문제가 뒤로 밀린 것은 첫째로 그 방면에 전문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여기에 대한 사회여론이 적은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가령 경성부내에만 하여도 조선인 정신병자가 약 이백 명 되는데 그 중 적어도 사십 명 가량은 그 증후로 보아서나 환경으로 보아서 반드시 어떤 적당한 전문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성부 사회과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첫째 적절한 수용소가 없습니다. 경성제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병실은 임상상의 재료에 필요한 숫자에 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기행문에 쓸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매 그만두려니와 이곳에 와서 보니 실로 기가 막힙니다. 이 병원 병실에는 종류가 많아 단순히 신경쇠약같이 정숙을 요하는 환자의 병실과 만성정신병실로 넘어가기 전 일시성이라는 기대 아래 치료하는 병실과 만성정신병실과 강한 광폭상태의 병실 등이 따로 있습니다.⁷²⁾

이 글에는 호주와 비교되는 당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 상황에 대한 이중철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1935년 12월 19일 이중철은 드디어 구주제국대학에서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의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⁷³⁾ 이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한국인

이 받은 최초의 박사학위였다. 당시 일본의 대학에서는 요즘과 달리 학위를 받기 위해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학위논문 한 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 제출하며 박사학위수여를 청구하는 형식을 띠었다. 이중철이 구주대학에서 한 연구는 정신질환에 따른 뇌조직의 변화양상을 관찰하는 형태학적 연구였다. 이중철은 주로 정신분열증환자 소뇌의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마다고조(下田光造) 교수의 지도로 수행했는데 이것을 주 논문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청구하였다. 주 논문의 제목은 『마비성치매에 있어서 소뇌의 병리조직학적 연구(日文)』⁷⁴⁾이었다. 이 주 논문 외에 부논문이 4편 있었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The origin of Senile Plaques 2) 만성하기뇌염에 있어서 Oligodendroglia의 변화 3) 다핵 퍼킨지 세포의 병리학적 의의(日文) 4) Estimation of blood Calcium and Kalium in cases of Parkinsonism 이 같은 뇌세포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이중철은 oligodendroglial cell을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Lee's method로 명명되어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1936년에 게재되었다.⁷⁵⁾ 당시 이중철이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독일의 의학잡지가 아닌 미국의 의학잡지에 영문으로 투고한 점이 이채롭다. 공저자로 되어 있는 히로시는 이중철이 연구하던 실험실에서 조직표본 제작을 담당하던 조수였다고 한다.⁷⁶⁾ 이중철이 구주제대에서 학위를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후배로 역시 정신과를 전공한 남명석(1938년 졸업)과 김린수(1939년 졸업)가

72) 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

73) 조선의보 1935:5:98.

74) 李重澈, 癲癲性癡呆ニ於ケル小腦ノ病理組織學的研究, 福岡醫學雜誌 1935:28(11):2567-2634.

75) S. Hiroisi and C. C. Lee, Origin of Senile Plaques,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1936:18:

76) 한국근대정신의학의 역사적 조명, 서울의대 정신의학 1988:14(1):19.

모두 구주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⁷⁷⁾

박사학위를 받은 후의 소감을 이증철은 『세브란스 교우회보』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감상이라고 특별히 적을 것이 없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공부가 결말을 보게 되었고 이 터 위에다 또다시 무엇이든지 앞으로 이루어볼 희망 가운데서 우선 이 문턱 하나를 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방면으로 지도해주신 선배와 知友 여러분께 감사하는 중 특별히 은사 맥라렌 교수와 모교당국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⁷⁸⁾

이렇게 학위를 받고 교실로 복귀한 이증철은 조교수로 발령받아 근무한다. 이 시기 이증철이 출제한 정신과와 신경과 시험문제가 남아 있어 당시 정신의학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이 두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학년 정신과 문제(1926년 3월 3일 오후 1-4시)

1. 조울병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부정중독성정신병에 대해 서술하시오.

4학년 신경과 문제(1926년 3월 3일 오후 1-4시)

1. 척수로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무도병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증철은 1937년부터 세브란스 정신과의 과장으로 일하게 된다. 그런데 한창 활발히 일할 시기에 이증철은 뜻하지 않게 학내 문제에 연루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것은 예비슨 명예교장이 고향으로

돌아간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이영준 병원장이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켰다는 말이 돌았는데 이증철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영준은 시인과 부인을 거둬하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똥이 엉뚱하게 해부학 교수 최명학에게 튀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던 중 최명학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최명학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이영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명학은 이영준을 비롯한 학교당국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고와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최명학과 세브란스 동창회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최명학은 1936년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⁷⁹⁾ 이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증철 역시 학교를 사직하고 나와 마포동 165번지에서 개원을 했다. 개원을 하던 이증철은 해방을 얼마 앞두지 않은 1945년 4월 14일 41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5. 일제 말기의 세브란스 정신과

이증철과 맥라렌은 비슷한 시기에 세브란스를 사직했다. 사임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맥라렌이 1938년 10월 경 사임했고 이증철은 이보다 조금 일찍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⁸⁰⁾ 이증철이 학교를 사임한 것은 앞서 설명한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었지만 맥라렌의 사임은 스스로의 문제, 즉 그가 앓고 있던 조울증 때문이

77) 구주대학 의학부 신경정신의학교실에서 발간한 동문회명부에 따르면 남명석은 1941년 4월부터 1943년까지 유학을 했고, 김린수는 1940년 4월부터 1942년까지 유학을 했다. 남명석은 해방 후 서울의대 정신과의 교수로 있었고, 김린수는 함흥의과대학 정신과의 교수로 있었다. 同文會名簿, 九州大學醫學部神經精神醫學教室, 1987, p.18-19. 김린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다음과 같다. 金麟洙, 老人腦ノ研究, 福岡醫學雜誌 1942:35(12):1167-1196.

78) 세브란스 교우회보 1936:25:31-32.

79) 世專校 紛糾의 真相. 기독교신보 1936년 8월 5일.

80) C. I. McLaren, Letter to Mary, Oct. 16, 1938. 맥라렌은 1938년 10월 16일자 편지에서 자신의 사임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그와 함께 이증철의 사임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었다. 맥라렌의 발병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발병했고 한 번 발병하면 2-3개월간 증상이 지속되었다.⁸¹⁾ 맥라렌은 자신의 발병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솔직히 알렸으며 자신의 병으로 인해 병원에서의 일을 제대로 책임 있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임을 결정한 것이었다.⁸²⁾ 물론 이중철의 사임을 야기한 당시 세브란스 병원 내부의 복잡한 문제가 그의 병세를 악화시킨 측면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 이외에 외부의 상황도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1937년 7월 일본은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주의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듬해인 1938년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를 거부한 평양의 숭실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선교사들의 모든 공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특히 1940년 12월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일제는 선교사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해 선교사들에 대한 구속과 억류를 감행했다.⁸³⁾ 이러

한 가운데 1941년 6월 맥라렌은 가족을 호주로 먼저 보내고 남아 있다가 같은 해 12월 8일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의 감방에서 11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1942년 2월 23일에 석방된 후 1942년 6월 2일 호주를 향해 떠났다.⁸⁴⁾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던 선교사였다.

한편 맥라렌과 이중철이 떠난 세브란스 정신과에는 폐결핵을 비롯한 폐질환을 주로 연구한 내과 의사 장경(1932년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⁸⁵⁾ 1939년부터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고⁸⁶⁾ 이듬해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세브란스를 1939년에 졸업한 류창현이 조수로 들어왔다.⁸⁷⁾ 1940년 이후 해방까지 세브란스 정신과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언론과 사상 통제가 심해지면서 그 동안 학교에서 발간되던 각종 인쇄물들의 간행이 중단된 까닭에 학교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맥라렌과 이중철이 떠난 이후 정신과 활동이 이전보다 위축된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43년 당시에는 병원 내에 더 이상 정신과가 존재하지 않았⁸⁸⁾ 그리고 전시체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전쟁

81) Jessie McLaren, Letter to Mary, Jan. 15, 1939.

82) C. I. McLaren, Letter to Mary, Oct. 16, 1938.

83)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p.855-859.

84) C. I. McLaren, *Eleven Weeks in a Japanese Police Cell*. 1943, p.36.

85) 폐에 관한 질환을 주로 연구한 장경이 세브란스로 오게 된 경위와 잠시나마 정신과를 담당하게 된 경위는 분명치 않다. 세브란스에 부임하기 이전 장경은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腸間膜及比其他ノ組織中ニ寄生セル肺吸蟲證例ノ病理解剖學的竝ニ寄生蟲學的所見. 朝鮮醫學會雜誌 1934;24:1003-10014; 肺結核症ノ病理組織學的研究. 朝鮮醫學會雜誌 1935;25:1613-1614. 장경은 1935년에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제목의 논문으로 1939년 경성제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중철 선생의 아들인 이호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장경은 세브란스에 오기 전 경성제대 정신과의 구보기요지 교수 밑에서 6개월 동안 정신과 수련을 받았다고 한다(한국근대정신의학의 역사적 조명, 서울의대정신의학 1989;14:19). 이호영 선생의 증언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는 당시 세브란스 정신과의 상황을 알려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다만 연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에서는 당시의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1940년대 이후 세브란스 정신과의 상황을 이호영 선생의 증언이 알려주고 있지만 문서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지 않았고 본문에는 문서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만 기록하였다.

86)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9. p.106.

87)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40. p.111.

준비와 수행에 맞춰져 진료, 연구,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과대학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신과 교육은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도 매년 이루어졌음을 학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변화는 이전에는 정신과를 4학년에서 배웠으나 1942년 졸업생부터는 3학년에서 정신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해방 이전 세브란스 정신과를 이끈 두 주역은 맥라렌과 이증철이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였으나 학문적인 경향은 다소 달랐다. 선교사였던 맥라렌은 기독교적 사상의 바탕 위에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의 글에 나타나는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정신의학을 좀 더 인간적이고 인문학적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다. 맥라렌이 정신의학의 인문학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이증철은 정신의학의 과학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발표한 연구 논문들의 주제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는 생물학적 연구, 뇌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에 집중했다.⁸⁹⁾ 이러한 특징은 정신의학에 대한 이증철 자신의 취향일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조선을 지배

하던 일본 정신의학계의 주된 흐름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증철과 같이 대학의 교원으로 남기 위해 일본대학의 의학박사학위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당시 학계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⁹⁰⁾ 물론 연구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환자 진료에서는 맥라렌에 의해 확립된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이 유지되었다.

어쨌든 맥라렌과 이증철이 정신의학의 중요한 두 측면을 대표하고 있었기에 당시 세브란스 정신과는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그러나 이증철의 때 이른 사직과 요절, 그리고 일제 말기 맥라렌의 강제 추방 등 어려운 내외 환경 등으로 인해 해방이 되기까지 더 이상의 학문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증철의 후배였던 남명석, 김린수 등이 정신의학 연구에 몰두해 해방 이후 각각 남과 북에서 우리나라 정신의학 재건과 발전에 기여했다.

색인어 : 정신의학,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세브란스 정신과, 맥라렌, 이증철

투고일 2008. 5. 21.

심사일 2008. 5. 28.

심사완료일 2008. 6. 9.

88) 同窓會名簿, 旭醫學專門學校同窓會. 1943. 이호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세브란스 의전이 아사히 의전으로 강제로 개명되면서 정신과가 내과에 흡수되었으며 장경 선생이 담당하는 제3내과가 정신과와 신경과를 관장했다고 한다(한국근대정신의학의 역사적 조명. 서울의대정신의학 1989;14:19).

89) 본고의 심사자 중 한 분은 이증철의 이러한 연구 성향으로 보아 그를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신경과 의사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신학과 신경학의 구분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접근방법에 따라 정신학과 신경학을 구분한다면 최근 정신의학계의 주류가 생물학적 방법임이 설명되지 않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을 모두 신경과 의사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증철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했으므로 정신과 의사였다.

90) 또 다른 심사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의 정신의학도 기질적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적 치료도 공부하고 임상에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정신의학계의 주류가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적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류는 아무래도 기질적 접근이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정신치료에 관한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위의 언급은 일본 정신의학계의 '주류'에 대한 것이다.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of SUMC(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Psychiatry Department and the Formation of Humanistic Tradition

YEO In-sok*

Psychiatry is a branch of medicine which deals with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Although psychiatric concept and treatment is not absent in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it was not regard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of medicine. Modern psychiatry was introduced into Korea as modern Western medicine was introduced in 19th century. The American medical missionary Dr. Allen and Dr. Heron gave the first classification of mental diseases of Korean patients in their first year report of Jejoongwon hospital. The statistics ar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rate of hysteria patients among the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t was Dr. McLaren who took the charge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the successor of Jejoongwon hospital. As a psychiatrist, Dr. McLaren had a deep interest in human nature and mind. His thinking on the subjects was based on his Christian faith and philosophy. He claimed that Christian fai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ring mental diseases. And several medical students decided to become a psychiatrist under his influence. Among them is Dr. Lee Chung Chul who took the charge of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after McLaren. After graduation in 1927, Dr. Lee studied in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Australia, and Japan. His main research interests were focused on the biological aspects of mental disorders, and he published several important papers on the subject. But his unexpected early resignation and subsequent expulsion of Dr. McLaren from Korea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indered further development of psychiatry in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until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But some of their students specialized in psychiatry during the hard period of early 1940s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psychiatry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Key Words : Psychiatry, McLaren, Lee Chung Chul, Severance Hospital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